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남부지역본부 신사옥 개소식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남부지역본부는 지난 8월 29일(금)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 신도시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고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동지를 튼 신사옥의 모습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새 출발

부산남부지역본부 신사옥 개소식은 김난희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약 50분간 공식 일정이 이어졌다. 기념 촬영 및 커팅식은 1층 정문에서 진행되어 모든 참석자들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함께 기념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부산남부지역본부를 대한민국 산업보건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신사옥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가 밀집한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일터의 건강을 넘어 국민의 삶 전반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
‘부산남부지역본부’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보건관리 서비스 강화

개소식에는 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민광제 부산북부고용노동청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등 산업보건 주요 인사와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백헌기 회장은 기념사에서 부산남부지역본부가 나아갈 세 가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첫째, 고령화, 기후변화 등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맞춤형 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스마트 산업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보건 선순환 모델 실현을 위해 지자체, 산업체,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부산남부지역본부는 앞으로 ‘일터’의 건강을 넘어 국민의 삶 전반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며 대한민국 산업보건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